

파견기간	1학기	<b>교환학생 귀국 보고서</b>	학 번	2021-16407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 명	손호정

###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막연하게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대학 생활 속에서 그 다짐은 점점 뒤로 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부터 학교생활을 씬 없이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3학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분명 값지고 의미 있었지만, 동시에 점차 지쳐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단순한 휴식이 아닌 보다 의미 있는 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익숙한 환경을 잠시 벗어나 전혀 다른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환기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교환학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기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에 유리한 유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비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동시에 전공인 기계공학과 관련한 수업들이 잘 마련된 독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헨공대는 독일 내에서 기계공학 분야로 가장 높은 명성을 갖춘 대학이었고, 공과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주변 국가로 이동이 편리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도시에서 자라온 제게는 소도시 아헨의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2. 파견대학/지역 특징

아헨은 독일 서쪽 국경에 위치한 대학 도시로, 인구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국제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는 규모가 크지 않아 생활 편의성이 높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쾰른·뒤셀도르프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도 1시간 내외로 쉽게 닿을 수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아헨공대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대학으로, 우수한 강의와 연구 환경을 통해 학문적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도시 특유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이 어우러져 학업과 문화적 경험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이름, 여권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몇 주 후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안내하는 첫 번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안내 메일을 통해 실제 대사관 방문 날짜가 확정되며, 지정된 일자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에는 여권과 여권사진, 독일대학 입학허가서, 학력 증명서, 어학성적 증명서, 강의 언어 확인서, 보험 가입 증명서, 재정증명서(슈페어konto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 Motivation Letter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약 확인 메일 출력본과 인터뷰 비용을 현금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비자는 신청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출국 직전에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인터뷰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까지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성수기에는 두세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출국 일정에 맞추어 여유 있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숙소 지원 방법

### 2.1 기숙사

교환학생이 아헨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기숙사와 WG(플랫쉐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숙사의 경우, 학교와 연계된 Quota Room이나 지역 기숙사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 인원이 많아 배정이 쉽지 않고, 배정이 되더라도 입주일 기준 몇 달 전에는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 2.2 WG (WG-Gesucht)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교환학생들이 선택하는 대안은 WG(WG-Gesucht)입니다. WG는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여러 명이 한 집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개인 방과 공용 공간(주방, 거실, 욕실)을 함께 쓰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또는 어플을 통해 원하는 집을 찾아 지원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나 기존 거주자의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주가 결정됩니다. 지원자가 많아 쉽지는 않지만,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입니다.

- **기준 설정:** 월세 상한선과 위치 같은 최소 조건을 먼저 정해두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집이라면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상한 광고 주의:** 계속 보다 보면 화질이 좋지 않은 건물 외관 사진과 남학생 단체사진이 함께 올라온 사설 기숙사 광고가 반복되어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사이버 단체와 연관된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광고 꼼꼼히 읽기:** 지원하기 전 반드시 광고를 끝까지 읽고, 그 조건에 맞춰 지원문자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광고는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지원 문자를 특정 이모티콘으로 시작하라"는 식의 요구를 넣어 지원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 **지원문자 작성법:** 메시지는 짧게 보내기보다 취미, 교환학생으로서의 목표, 생활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영어보다는 독일어로 작성된 메시지가 답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였습니다.
- **인터뷰 태도:** 실제 방문 시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며 입주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WG를 통해 방을 구했고, 예상했던 것 보다는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출국 전후로 WG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본교 등록금과는 별도로 약 300유로의 등록비(tuition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100유로는 학생회비이고, 나머지 200유로는 아헨이 속한 NRW 주 전역의 열차와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Semester Ticket 비용입니다.

제가 거주했던 WG의 월세는 350유로였으며, 보증금은 한 달치 월세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학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냈던 기간에는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300~500유로 사이의 월세로 WG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4. 기타 유용한 정보

독일에서 학생비자 발급과 파견교 등록을 위해서는 blocked account(슈페어konto)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월 생활비를 체류 개월 수만큼 미리 예치해 두고, 현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Expatrio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슈페어konto 개설과 건강보험 가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방법

수강 신청은 RWTHonline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대학처럼 선착순 경쟁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강 약 일주일 전부터 개강 이후 한두 달까지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정원이 매우 넉넉하여 신청 인원 제한으로 인해 수강이 어

려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표가 겹치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경험해 본 뒤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계공학부 학생의 경우, 타 학부 강의를 수강할 때는 전체 과목 수의 3분의 1 이하까지만 인정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부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RWTH에서는 수업 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업만 신청한 상태에서는 청강이나 과제 참여는 가능하지만,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며 학점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과목은 수업 신청과 더불어 시험 신청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아헨공대에서 개설되는 영어 강의는 대부분 석사 과정 과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석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수강 신청이 자유로운 편이라 학기 시작 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이 가능했고, 최종적으로 Automotive Engineering II, Multibody Dynamics, Rail Vehicle Vibration Dynamics를 수강했습니다.

- Automotive Engineering II는 명강으로 알려져 있어 수업 난이도가 다소 높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본교 기계공학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동차공학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특히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 Rail Vehicle Vibration Dynamics는 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적절하여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교환학생 입장에서 학업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전공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추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Multibody Dynamics는 본교의 '로봇공학입문' 과목의 심화 과정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을 미리 이수한 학생이라면 훨씬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Embedded Systems와 Automated Driving은 꿀강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3. 학습 방법

제가 수강한 과목들은 공통적으로 과제가 없었고, 한 번의 기말시험으로 성적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 세 과목 중 하나를 필기시험 대신 구술시험으로 치렀습니다. 구술시험은 세부적인 계산 과정보다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필기시험보다 부담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구술시험을 준비할 때는 개념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필기시험은 개념 이해와 더불어 문제 풀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이 제공하는 연습 문제나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보면서 시험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4. 외국어 습득 요령

독일어의 경우 학교 Language Center에서 독일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German, Chinese, French, Italian, Japanese, Spanish 등) 강좌를 수준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 과목과 달리 별도의 수강료(약 200유로)를 납부해야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6회 이상 결석 시 F 처리가 되어 수강료를 그대로 낭비하게 되므로, 여행이나 다른 일정과 병행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학기 시작 전 일주일 동안 Welcome Week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은 새로운 교환학생 친구를 사귀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개강 이후에는 이러한 교류의 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면 이 시기에 열리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V. 생활

###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독일 현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식 재료 역시 아헨 시내의 go-asia 마트에서 쌀, 라면, 각종 조미료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식재료는 현지 조달이 가능해 따로 챙겨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 시나 일상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블럭국이나 코인 육수는 챙겨오면 유용합니다. 특히 물가가 비싼 나라로 여행할 때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의약품입니다. 독일에서는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 의약품도 가격이 비싸거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레놀, 감기약, 개인 상비약 등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마트 물가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해서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채, 과일, 유제품 등은 한국보다 저렴하고, 맥주 및 와인의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과자나 음료수, 생필품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는 한국의 1.5~2배 정도로 비쌉니다.

###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3.1 식당

먼저 교환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중식당으로는 Chinese Mensa와 Yan Tasty가 있습니다. Chinese Mensa에서는 약 4~5유로에 2~3가지의 반찬과 밥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고, Yan Tasty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방문했을 때 1인당 10유로 초반대 비용으로 마라 생선, 마파두부, 고기 튀김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식당인 Mensa Academica도 추천할 만 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Schnitzel Day'가 있어 저렴한 가격에 독일식 슈니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Döner(터키식 케밥) 역시 아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가격은 10유로 이하로 저렴하면서도 양이 푸짐해 아주 배부른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헨에서는 특히 Aga, Zoom Döner, Meister Döner 세 곳을 추천합니다.

#### 3.2 의료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저는 Tk 공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료는 한달에 140 유로로 꽤 비쌉니다.

#### 3.3 은행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저는 N26을 이용했습니다. N26은 인터넷 뱅킹 전문 은행으로, 온라인 신청만으로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절차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대부분의 마트와 식당에서 애플 페이를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3.4 교통

RWTH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Semester Ticket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독일 전역의 지역 열차(RE)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쾰른, 뒤셀도르프, 본 등 인근 대도시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일부 도시까지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티켓 검사 시 신분증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학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자주 계획한다면 교통 관련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DB(Deutsche Bahn) 앱은 독일 철도 시간표 확인과 고속열차(ICE) 예약이 가능하며, BahnCard를 구매하면 장거리 열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헨 시내 이동에는 Naveo 앱이 특히 편리합니다. Semester Ticket을 등록해 두면 버스와 열차 운행 정보, 실시간 지연 및 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맵으로도 버스 시간을 조회할 수 있지만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Naveo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 3.5 통신

저는 Aldi Talk의 Kombi-Paket M 요금제를 사용했습니다. EU 국가 내에서 15GB의 데이터와 무제한 통화를 제공해줘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도 매번 eSIM을 살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습니다. 개통 과정도 간단했는데, 가까운 Aldi 마트에서 스타터 유심을 구입한 뒤 안내에 따라 설치하고 영상통화로 신원 인증을 진행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요금제 변경도 손쉽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휴대폰 개통을 먼저 진행하는 바람에 Aldi Talk 앱에 계좌를 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ldi 요금제는 모두 4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4주마다 근처 Aldi 매장에서 실물 쿠폰을 구입한 뒤, 쿠폰 코드를 앱에 입력하여 충전했습니다.

다만 충전 후에는 자동으로 가장 기본 요금제로 전환되는데, 이 요금제는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 직후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로 다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교환학생으로 지내다 보면 학업 외에도 상당한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환 경험의 밀도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사교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Welcome Week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양한 동아리와 학생 단체를 접할 수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은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여가 활용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11개 국가를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뿐 아니라 주말을 활용한 근교 여행도 충분히 즐길 만합니다.

###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아헨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에 안전한 편입니다. 실제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큰 위험을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새벽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 다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이동하거나 주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일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고 WG를 구하는 경우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서쪽 Westbahnhof(웨스트역) 근처나 아헨 Circle 내로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헨 Circle 안쪽에 집을 구했는데, 웬만한 장소들은 도보 10~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했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 동쪽 Rothe-Erde역 주변은 치안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소 급하게 지원을 결심했기에, 준비 과정 중에서도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헨에서의 5개월은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며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책임감과 자립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든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제 대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젊은 시절의 한 장면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9 월 8 일
지원자* <b>서명 필수</b>	손 호 정 (인)